



타이거즈 'V12' 막 올랐다

23일 키움하이어로즈와 2024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 프로야구 내일 개막...KIA, 안방서 키움 상대 부상 악재에도 '역대급 전력'...기대감 속 시즌 출발 이범호 감독 "선택과 집중으로 초반 기싸움 나설 것"

'이범호'가 선택과 집중으로 초반 기싸움에 나선다.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는 23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하이어로즈를 상대로 2024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우승후보'로 주목받으면서 시즌을 준비했던 KIA는 개막 전 부상 악재를 만났다. KIA 타선의 중심이자 팀을 이끄는 '주장' 나성범이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카드 한 장을 빼고 전력 재배치를 하게 된 만큼 아쉬움은 크다. 일찍 '플랜B'를 가동하게 됐지만 이 감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개막전 라인업을 놓고 가장 눈길이 쏠리는 지점은 1루다. 시범경기 전까지는 이우성이 1루를 선정한 부위

기였다. 하지만 퓨처스 캠프에서 갈을 갈았던 황대인이 3연속 홈런 등 4차례 답장을 넘기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다. 또 부상으로 1루 기류가 달라졌다. 17일 KT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던 이우성이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개막전 출격이 불발됐다. 이 감독은 가장 타격 페이스가 좋은 황대인과 이우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있다. 황대인이 1루, 이우성이 외야로 배치하는 수로 초반 흐름을 타겠다는 구상이다. 개막 시리즈 이후에는 이우성의 발목 상태, 황대인의 타격 사이클에 따라서 1루수는 달라질 전망이다. 컨디션과 상대 전력을 통해 최적의 라인업을 꾸릴 계획인 이 감독. 마운드 엔트리도 '컨디션'에 방점을 뒀다.



이범호 KIA 감독

올 시즌 KIA 마운드에도 경쟁 바람이 뜨겁다. 일단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로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가 합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발진과 필승조는 지난해와 같다.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등 '토종 좌완 트리오'가

선발로 이닝을 책임진다. '전천후' 임기영을 시작으로 장현식-최지민-전상현-정해영이 승리 지키기에 나선다. KIA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명의 필승조를 제외한 '볼펜진' 구성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마운드 전력이 상승하면서 이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했다. 이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승리를 위해 '컨디션'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감독은 "페이스 좋은 선수들부터 기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투수도 타자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한다. 올라오는 타이밍에 변화를 줘서 볼펜진을 기용하면 필승조한테 데미지가 될 것 같고, 피로 누적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름이 아니라 컨디션 좋은 선수들로 체크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기준에 따라 '루키' 김민주는 조금 더 경험을 쌓은 뒤 1군 데뷔전에 나서게 된다. 6선발 후보이기도 한 황동하는 시즌 초반 볼펜에서 힘을 보태게 된다. 이 감독은 "곽도규, 황동하, 윤중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작년, 재작년에도 초반에 점수 못 내다가 후반에 눈에 띄었던, 잘 찼던 투수가 나오면

대량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반에 잘 버텨주면 점수 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중간에서 끌어줄 선수가 중요하다"며 "먼저 컨디션 좋은 선수를 써야 한다. 3월에는 더블헤더가 없다. 4월 더블헤더가 있을 경우 6선발로 동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 강자' 없는 시즌이 예상되는 만큼 이기는 경기에 집중하면서 승수를 쌓는 게 KIA의 전략. 이 감독은 "초반에 치고 나갈 팀이 없을 것 같다. 연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치고 나가는 팀이 없어도 연패로 빠지는 경우는 있을 것 같다. 이기는 경기 확실하게 하고, 연패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한다. 우승을 목표로 이길 수 있는 경기 확실하게 가져오고, 지는 경기는 체력적으로 세이브하면서 가겠다"며 "나성범이 빠지면서 상대 입장에서 '무섭다'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방망이 능력을 가진 타자가 많다. 중요한 상황에서 타점을 해줄 수 있는 최형우, 소크라테스, 김선빈, 김도영이 있다. 하위 타선에서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 방망이 능력치는 있으니까 잘 대처해서 우승을 목표로 가겠다. 초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후반이 중요하다. 어떤 선수가 뭉쳐있는지 중요하다"고 2024시즌 결승선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마지막 점검' KIA 윤영철 "시즌 재미있을 것"

오늘 롯데와 퓨처스 연습경기 선발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두 번째 시즌을 위한 리허설을 마무리한다. 윤영철은 22일 롯데와의 퓨처스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한다. 윤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운드 전면에 서서 KIA 승리를 책임진다.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윤영철은 미국 드라이브라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했다. 폭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커터라는 구종도 더했다. 윤영철은 시범경기를 통해 준비한 부분들을 보여줬다. 16일 KT전에서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윤영철은 39구의 직구를 던져 최고 142km를 찍었다. 직구 평균 구속은 139km를 기록했다. 또 18개의 커터(133-137km)와 함께 체인지업(13개·125-130km), 슬라이더(5개·123-131km), 커브(3개·115-121km)를 테스트했다. 1회 2사 2·3루에서 김도영의 포구 실책으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로하스에게 스리런은 맞았지만 과정은 만족스러웠다. 윤영철은 "스피드는 시즌 후반까지 봐야 알 것 같지만 작년보다 볼에 더 힘이 생긴 것 같다. 형들도 그렇고 내가 느끼기에도 힘이 좋아졌다. 작년보다 맞아야 할 공에 헛스윙이 나오고 그랬다"며 "의리형처럼 공이 빠르고 좋은 투수들을 상대할 때 타자들이 타이밍을 앞에 둔다. 그럴수록 변화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타자들이 직구 타이밍을 더 앞에



KIA 윤영철이 22일 롯데와의 퓨처스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024시즌 개막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놓게 하도록 해보려고 한다. KT전 때는 그런 부분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커터 테스트도 잘 이뤄지고 있다. 윤영철은 지난 시즌 슬라이더로 활용했던 구종이 커터성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벽한 커터로 준비했다. 윤영철은 "드라이브라인에서 원래 던진 슬라이더가 커터랑 비슷하다고 해서 변형시켜서 던졌다.

시합 때 써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다. 마지막 점검할 때도 몇 번 써보고, 시즌 때 활용하려고 한다"며 "몸쪽 높은 코스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높게 던지려고 하면 밀려들어 가는 게 있어서, 몸쪽 직구 던진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던지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던졌을 때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등판에서는 볼배합을 내가고 싶은 대

로 해볼 생각이다. 생각한 대로 볼배합을 할 줄 알아야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며 "새 시즌이 기대된다. 재미있을 것 같다. 야구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응원받으면서 야구를 하는 만큼 이보다 재미있는 것도 없다. 이닝을 가장 신경 쓰면서 올 시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부상 복귀' 이정후 '펼 펼'

MLB 에인절스와 시범경기 2루타 등 2안타 1타점 활약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터뜨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정후는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펄피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MLB)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2안타 1타점 1볼넷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범경기 타율은 0.400(2타수 10안타)으로 상승했다. OPS(출루율+장타율)는 1.083이다. 이정후는 지난 1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에 통증을 느끼고 조기 교체됐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규시즌을 앞두고 예방 차원에서 치료에 전념해왔다. 이정후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부터 좌완 선발 타일러 앤더슨을 상대로 안타를 뽑아냈고, 0-1로 끌려가는 3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선 볼넷을 골라냈다. 그리고 동점 찬스에서 5회초 2사 3루에서 이정후는 중견수 방향으로 적시 2루타를 날려 1-1 균형을 가져왔다. 이정후는 대주자와 교체됐고 5회말 수비부터 휴식을 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넥 점을 더해 5-2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